

현대車, 고객 소통 프로그램 'H옴부즈맨' 출범

현대자동차는 19~20일 경기도 양평 현대 블룸비스타에서 현대차의 대표 고객 소통 프로그램 'H옴부즈맨'의 3기 발대식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3기 옴부즈맨은 사진작가, 전자부품 연구원, 회사원, 선생님, 자영업자, 대학생 등 각 층의 고객 10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현대차의 상품과 서비스, 마케팅, CSV(공유가치 창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개선 방안을 만들게 된다. 현대차의 대표 '고객 참여형 소통 프로그램'이다. 이는 현대차가 2015년에 진행한 고객 소통 프로젝트 '마음드림' 행사에서 제안된 '고객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 채널 마련' 약속을 지켜 실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상품 혁신, 고객 가치 혁신, 사회 혁신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멘토의 조언을 받으며 제안의 방향성과 진행 가능성 등을 검토한다.

현대차는 H옴부즈맨 활동을 통해 제안도



지난 20일 현대블룸비스타에서 'H옴부즈맨 3기 발대식'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는 고객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작년 12월 출시한 쏘나타 스페셜 모델

'쏘나타 커스텀 패'은 핵심 사양부터 트림 구성, 최종 모델명에 이르기까지 H옴부즈맨의 제안을 바탕으로 탄생했다. /양성운 기자



아시아나항공 김이배 경영관리본부장(왼쪽 세번째)과 임직원, 임직원 가족들이 19일 강원도 흥천군 화촌면 산초울마을을 방문해 1사 1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강원도 산초울마을서 '1사 1촌' 봉사활동

아시아나항공 임직원들이 19일 강원도 흥천군 화촌면 산초울마을을 방문해 '1사 1촌' 봉사활동을 펼쳤다.

1사 1촌은 기업과 농촌 마을이 자매결연을 맺고, 농촌 일손돕기, 농산물 직거래 등을 통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06년 산초울마을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올해로 13년째 교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행사에 참여한 111명의 아시아나항공 임직원과 임직원 가족들은 모내기, 고구마 심기, 떡 만들기 등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진행했다. 아시아나항공과 사회공헌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의료진들도 작년에 이어 봉사활동에 참여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틀니세척 등 치아 검진을 실시했다.

또 아시아나항공은 이동식 앰프 등 음향기기와 강연대를 마을에 전달했다. /양성운 기자

오늘의 운세 5월 21일(목 4월 7일)



48년생 처음 만난 대인 관계에 착한 자와 악한 자 분간할 수 없다. 60년생 밖에서 바쁘게 돌아다니는 사이 불안감이 사라진다. 72년생 선·후배가 모두 힘이 되어준다. 84년생 친지의 조언이 일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된다.



49년생 주식투자는 볼길 여기저기 일을 벌이지 말 것. 61년생 몸만 피곤할 뿐 소득이 없다. 73년생 지금의 부인은 가장 소중한 사람이나 한눈팔지 말자. 85년생 윗사람으로부터 성공의 가능성과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는다.



50년생 유혹에 현혹되지 말고 주대를 세우면 이루어지는 날. 62년생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무리하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곤하다. 74년생 인내를 가지고 노력해야 성공할 수 있다. 86년생 겉모습 변한 것만 보고 속지 마라.



51년생 관리 소홀로 씨앗만 뿌려 놓고 수확을 못한다. 63년생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정리해야 한다. 75년생 반가운 인연을 만나 회포를 풀고 새로운 일도 함께 한다. 87년생 곁과 속마음을 일치하여 행동해야 신뢰가 구축된다.



52년생 새로운 계획으로 기세가 활기차고 금전운도 좋아 진다. 64년생 안팎으로 호흡 잘 맞추니 가정이 화목하다. 76년생 친절이 지나치면 위선자로 보이기 쉽다. 88년생 소원했던 관계와 다시 교제가 이루어진다.



53년생 식욕이 부진하니 신체 리듬 깨지기 쉽다. 65년생 인수 운이 좋아 문서 계약 계획이 오가는 밝은 전망이 있는 날. 77년생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날이니 대비책을 강구 하라. 89년생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일을 추진하라.



54년생 전업 할 만한 인연이 새롭게 들어온다. 66년생 상대를 겉으로만 보지 말고 여러 번 만나보야 알 수 있다. 78년생 쉽게 결정짓지 못하는 애매한 상황이다. 90년생 소극적이던 마음 버리고 적극적인 자세가 행운 부른다.



55년생 적극적으로 도전하니 성공으로 가는 하루. 67년생 문서 운이 상승하여 입찰 등록 대길하다. 79년생 경사 있으니 집안에 즐거움이 가득한 날. 91년생 예민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자신만 손해니 마음을 비워야 할 때.



56년생 운세가 좋은 방향으로 흐르니 문서 매매수가 좋다. 68년생 바쁜 하루 교통사고에 안전 주의하라. 80년생 이직은 좋으나 해외나 원행은 불길하다. 92년생 맞선 보는 자리에 친구 데려 가지마라 혼사가 깨져 슬프다.



57년생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 하지 마라. 69년생 저축은 보람꾸준히 노력하면 보답이 있는 하루이다. 81년생 직장에서 입신양명 하니 동료의 시기 질투가 있다. 93년생 고마운 마음의 표시로 웃음꽃이 핀다.



58년생 아무리 잘났어도 혼자서는 어려운 주변 사람과 화합할 때다. 70년생 신중히 행해야 목표 이룬다. 82년생 공든 탑이 한순간의 방심으로 무너질 수 있다. 94년생 한 우물을 파야 물을 얻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라.



59년생 불합리한 행동은 사소한 일이라도 해서는 안 되는 날. 71년생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부단히 노력하라. 83년생 계획하고 시작한 이상 도중회피는 하지 말자. 95년생 지난 뒤에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야 한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 3×3으로 이루어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5	9	6	8			7
7	4		1			3
	1		5	8		
	2				5	
5					1	
3			2	8	7	4
6			7			
9	2	3				5
			4		8	2

	7	2			4	8
5		8	1			2
	1			9		
1		2			7	
9	5	4	6		2	
4				6		
3	9	6	8	4	1	2
2	5	1	3	7	5	8
7	8	4	2	9	1	6
5	3	9	3	8	2	6
6	5	9			6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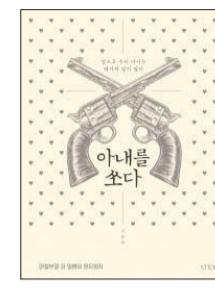
스도쿠 정답								
1	7	5	9	4	3	6	8	2
9	2	3	8	1	6	4	7	5
6	4	8	7	5	2	9	3	1
3	1	6	5	2	8	7	4	9
8	5	7	4	3	9	2	1	6
4	9	2	1	6	7	3	9	4
2	6	1	3	7	5	8	9	6
7	8	4	2	9	1	5	6	3
5	3	9	6	8	2	4	7	1

문제 제공=보뉴스

새로 나온 책

아내를 쓰다

스티/김용원 지음



젖먹이 아이와 아내를 허로 두고 뜻하지 않게 군대에 끌려가 다시피 한 남자의 이야기다. 시공간에 갇히자 훈련소 시절부터 아내가 있는 고향집을 향해 하소연하듯 편지를 쓰아 올린다. 그때 오간 백여 통이 넘는 편지 중 67통을 추려 원본과 함께 담았다. 아이가 시집갔을 정도로 강산이 세 번이나 변했지만, 당시 집에 돌아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세상이 원망스럽고, 가족과 헤어져 살아야 하는 일로 거의 미칠 지경에 이른 한 가정의 애타는 심경과 안절부절못하는 우리 시대 짧은이의 모습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다.

편지 형식으로 보낸 이야기들은 흔이 깃든 진솔한 이야기다.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에 진정성이 가지는 힘은 위대하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진실이다. 그러한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아서 저자는 책을 엮었다. 분단의 쓰라린 아픔과 이별, 가족과의 생이별. 어떠한 이별이든 그 어느 하나 우리 얘기가 아닌 것이 없다. 편지에서는 유약한 한 인간의 모습부터 강인한 인간의 단편을 볼 수 있다. 한 인간이자 가장, 아버지, 자식, 손자, 오빠, 친구의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의 다른 모습을 다볼 수 있다.

180쪽, 1만1800원

/신정원 기자 sjw1991@

마블러스 웨이즈의 일년

문화동네/세라 원면 지음



'신이 토끼였을 때'로 독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사로잡은 배우이자 작가 세라 원면이 두번째 소설 '마블러스 웨이즈 일년'으로 돌아왔다. 책은 우연인 듯 운명처럼 만나 한 해를 함께 보낸 아흔살을 목전에 둔 노인 마블러스 웨이즈와 사랑과 전쟁의 상처로 삶의 방향을 잃은 청년 프랜시스 드레이크의 여정을 따라가며, 끈끈하게 자나라는 우정과 그 속에서 움트는 삶의 희망을 그린다.

400쪽, 1만4500원

/신정원 기자

김상회의四季



계절의 여왕 5월에 마음 청소

계절의 여왕은 5월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다. 파란 하늘과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진다. 누구나 5월을 좋아하는 이유이다. 5월이 더 좋은 건 부처님 오신 날이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사바세계에서 살아가는 대중들에게 지혜(智慧)와 광명(光明)을 주셨다. 부처님이 태어난 날은 기원전 624년 음력 4월 8일이다. 그 날을 기리는 게 지금의 '부처님 오신 날'이다. 부처님께서 대중들에게 전하신 것 중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눈을 말한다. 광명은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이다. 눈이 시리도록 푸른 신록이 내다보이는 창문이 있다고 하자. 창문이 더러워지면 신록이 보이지 않는다. 창문을 닦아내고 청소하면 신록이 다시 잘 보인다. 사람의 마음도 비슷하다.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이 탁해질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창